

주부신행담

모두가 내 탓인 걸

지 난날을 회상해 보면 당시엔 견뎌내기 힘들 것 같던 고통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임을 뒤늦게야 알게 된다. 이를 깨우치면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해 울음이 저절로 나온다. 모두가 내 어리석음, 욕심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는 안다. 당시에는 이것저것 사정없이 쏟아져 나오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에 허공에다 왜 이런 일들이 닥쳐 오느냐고 물어도 보고 처음에는 갈망질광 하면서 더욱더 파고 들기도 했다. 내가 모두 저질러 놓은 일이라면 해결하는 것도 나를 이끌어 다니는 자불, 즉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굳게 믿게 된 것이다.

공평히 생각하게 됐다. 절에 가서 스님을 뵈게 되면 그 일부러 풀었지만 속시원하게 가르쳐 주는 분은 없었다. 불교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모르던 나는 불교에 의문이 많았다. 왜 절을 세 번 해야 하며, 무슨 마음을 갖고 절을 해야 하는지, 모양이 다른 부처님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등등... 궁금한 것 투성이었다.

위버리고 왔다. 내 어리석음이 화를 부른 것 같다.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40여년을 모셨던 부처님을 그렇게 함부로 하다니...

그 이후 잘하던 식당도 주인이 쓰겠다고 비워달라고 해서 시설비 권리금 등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빈 몸으로 나오게 되었다. 빚을 지게 되니 마음의 고통은 시작이 되었고 남편이 가서 일하는 현직마다 부도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IMF가 왔고 여지나 고생을 했는데 지난 5년 간의 세월은 악몽 속에서

무조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건 싫었다. 의문이 많더니 아량이면 용케 믿음을 갖고 싶어 이곳 저곳 수소

모든 일이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 밖으로 헤매며 남 원망하지 말고 자불을 믿고 관찰때 잘 풀려나간다

문 하다가 언니의 소개로 안양 한마음 선원을 알게 됐다. 집에서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일일법회에 참석했다. 대행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교에 관한 많은 책들을 한가지씩 골라 밤낮없이 열심히 읽고 테이프도 틀어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

그러다 어떤 보살을 알게 되었다. 불교공부를 하던 외종이웃음에도 여전히 엄마가 집에 모셨던 부처님을 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여전했었다. 그분에게 나의 격정을 이야기 하니 자기 자신이 치워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부모님을 살피하면서 친정집에 가서 풍뎉 때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난 불교공부를, 마음공부를 한 불자라는 생각에 앞서 배운 마음공부를 의지자로 생각하면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뎠다. 나를 이끄는 주인공은 이 모두가 내 탓인 것을 가르치면서 이끌어 주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관찰하면 어딘가에서부터 자연스레 풀려나갔다.

나는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항상 틀어지지 않는 생활 속의 불법임을 알고, 함께 공부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마음공부야말로 보배 중의 보배임을 알고 있다. 나를 이끄는 내 자불을 믿고 밖

에서 헤매지 말고 내 자아부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데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인연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선은 점장이나 철학관 등을 찾아 해매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런데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것도 나요, 해결책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점장이 무슨 해결책을 주는가. 밖에서 찾지 말고 수억겁 전부터 나를 형성시켜서 이 날까지 만들어 이끌고 다니는 자불, 앞으로도 이끌고 갈 자아부처님만 믿고 거기서 나온 모든 일은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불국토가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는다. 마음은 하늘에서 알고 땅에서 알고 법계에서 알기에 진실한 마음을 내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만큼 넓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면 공생 공용 공심 공제임을 모두가 알게 되리라 믿는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야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말보다는 실행을 앞세우는 불교인이 많으면 좋겠다. 자기 자불을 믿고 관찰 때 자기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마음공부. 이것이 부처님 법이며 진리라는 걸 알아야 한다.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갑자기 풀려나간 일들에 방황하면서 남 탓으로 돌리고 미워하며 원망한다. 이럴수록 문제는 더욱 얽히고 싹쓸 뿐이지 해결될 길이 없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다 하면 내려가는 쉬운 길이 있는 것이 인생살이기에 지난 일도 다가올 일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오늘을, 현재를 잘 보낼 것을 관하면서 살려고 노력한다.

한마음선원을 다니면서 배운 이 마음공부가 내 인생을 어렵고 고통 속에서라도 여유있게 만들어주었기에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다.

갑작스런 사고로 실명한 청년한테 공부를 해보라고 가르쳐 주면서 대행스님 법문테이프를 여러개 주었다. 스님



그림 · 이준석

의 법문을 접한 그 청년은 갑자기 다친 현실 앞에서 벽에 머리를 치고 방바닥을 손으로 때리면서 살아오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지금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다. 만약에 눈이 보이면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대행스님이 제일 먼저 보고 싶고 보살님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불교를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임을 알아 무척 고마웠다.

부모 형제 남편 자식들도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에 이 마음공부를 하면 좋으련만 살아온 과정이 달라서인지 쉽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많이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불교를 배울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면서 마음만 내 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절에 데리고 다

니면서 믿음을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데리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오히려 부처님께 수행을 닦아야 된다.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야 마음을 갖게 되고 성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안되느냐고 말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쉽게 된다면 믿음을 때는 분별이 없을 것이다. 인연따라 진실하게 주인공을 믿고 관찰하면 그만큼 성숙되어 가면서 문제도 해결됨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배우는 공부가 부처님의 진리라 믿고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소풍 오면서 배낭 속에 짐이 없고 나온 짐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 나온 자리에서가 맡기면서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고 이 가정을 지켜 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길 바란다.

박영미(경북 영주시 휴천동)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

중·대형 천연물추출·전처리·분별·정제·품질관리
7500㎡ 시설·18년 경력·국립자연자원연구소
전문인력·R&D·기술·인력·연구시설

〈성·장·발·육!〉
성장기에 필요한 필수영양소
적당한 운동이 중요됩니다.

작은키 포기 하지마세요

키가 유전이라고요?

영양 31%	유전 23%
운동 20%	환경 16%
기타 10%	

오늘 세상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키가 작으면 학교에서 물론, 취직할때 등 대우에 걸림돌. 현재 강인제일 키를 높이는 수순. 성장 호르몬 요법이 성형술이나 수혈만능적 하는 고비용대상에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이에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키를 높일 수 있는 키높이를 이렇게 특허된 노하우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키높이

“어부구리 벌써 1cm”

키높이

Ca

1m80cm 다리 시대!

키가 낮은 작은키 키높이가 키높이입니다.

제조원: (株) 關豐洋行 판매원: 키높이성장원

소비자상담 080-011-8677 대리점문의 (02)563-1534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판매 : 인터넷 불교 백화점 마하몰 제조 : 한국조폐공사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보급

「달마대사와 경전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함께 모셨습니다. 가정에는 품위있는 소장품, 고마운 분께는 마음의 선물들,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을 선택하십시오.

▶ 스탠드형 경판 (교구 오동나무 케이스 포함)
▶ 규격 : 가로 49cm 세로 23cm,
▶ 가격 : 97,000원

▶ 액자형 경판
▶ 규격 : 가로 69cm 세로 43cm,
▶ 가격 : 107,000원

불교 캐릭터 무공해 투명 한방 미용 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크업 잔여물까지 깨끗이 한방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활토, 프로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마사지 효과, 피부노화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6개 1세트 : 16,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500개 이상 : 개당 20%할인
10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첨가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